

블록버스터형 미술관전시의 경향과 현황분석
-2007년~2009년 전시를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Trend and Present Condition
of the Blockbuster Gallery Exhibition
-Focussed on the Exhibitions Taking Place from 2007 to 2009-

이소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박사과정

Lee so-yeon

Ph.D Course, Graduate School of NID Fusion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1. 서론

- 1-1. 문제의 제기
- 1-2. 연구의 목적과 방법

2. 블록버스터형 전시의 등장

- 2-1. 블록버스터형 전시의 등장배경
- 2-2. 블록버스터형 전시의 특징
 - 2-2-1. 기업협찬과 마케팅
 - 2-2-2. 블록버스터 전시의 파급효과

3. 대형미술관의 블록버스터형 전시양상의 경향과 전시효과

- 3-1. 블록버스터형 전시의 구조와 경향
- 3-2. 블록버스터형 전시양상의 효과와 영향분석

4. 국내 대형미술관의 블록버스터형 전시 분석 사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전시 중에서

- 4-1. 2007년 국내 대형미술관의 블록버스터형 전시분석
- 4-2. 2008년 국내 대형미술관의 블록버스터형 전시분석
- 4-3. 2009년 국내 대형미술관의 블록버스터형 전시분석
- 4-4. 지역미술관의 전시분석

5. 전시문화의 과제와 전망

참고문헌

논문요약

세계도처에서 열리고 있는 블록버스터형 전시는 반세기동안 급속도로 확산되며 문화예술의 한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 서양의 유명 박물관이나 미술재단에서 소장하고 있는 대형작가들의 작품을 국내에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대중들을 미술관으로 나들이하게 하였고 다양한 나라와 역사를 담고 있는 전시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의 트렌드가 되었다.

블록버스터형 전시를 미술관에 올리기까지의 과정은 오랜 기간 동안의 치밀한 기획과 더불어 작품 대여료, 운송료, 보험료 등의 비싼 경비를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인 문제가 동반된다. 이에 블록버스터형 전시구조에서 마케팅 전략은 전시의 필수요소가 되었고, 거대 자본의 투입과 함께 전시가 상업화 양상을 띠게 되었으며 전시양상은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대형작가만을 선호하는 형태를 부추이게 되었다. 인

지도 높은 화가의 작품을 선호하며 유명화가의 판화와 드로잉 작품으로 구색만 갖춘 전시를 언론사와 전문기획사가 기획, 주최하고 미술관은 대역만 하는 전시구조가 일반화 되었다. 그러나 미술관은 블록버스터형 전시를 기획함으로써 운영부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대중들은 해외의 미술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유명화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 문화생활과 여가 활동을 미술관을 통해 하게 된다.

따라서 블록버스터형 전시의 경향과 파급효과가 미술관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의 대형미술관의 블록버스터형 전시를 분석요구하게 되었다. 국내의 대형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의 덕수궁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특색 있는 블록버스터형 전시의 경향을 분석하였고, 블록버스터형 전시의 영향을 받은 지역미술관의 전시도 연구하였다.

본고는 앞으로 전시를 기획함에 있어 늘 비슷한 서양화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디자인전이나 동화작가, 패션디자이너, 사진전 등 다양한 작가와 폭넓은 소재의 전시기획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대중의 문화적 충족을 만족시켜주는 것은 미술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미래의 전시문화는 향상된 관람객의 욕구와 수준에 맞춰 대형미술관이던 지역미술관이던 삶의 풍부함을 전달할 수 있는 전시가 많이 기획될 것으로 전망한다.

주제어

블록버스터, 전시양상, 미술관

Abstract

The blockbuster type exhibition held all over the world has been rapidly spreading for the last half a century and established themselves as one form of cultural arts. They have encouraged the public to visit galleries by making it possible for them to appreciate the works of major artists belonging to famous museums and arts foundations in the west. And it has become the trend of cultural arts by providing exhibitions of various countries and histories.

The process of putting a blockbuster type exhibition on display is accompanied by the economic problems of paying immense expenses including works rental fee, shipping charge, and insurance as well as the detailed planning for a long period. Accordingly, a marketing strategy has become a requirement for a blockbuster type

exhibition, and this form of exhibition along with the huge amount of capital investment has resulted in the commercialization of exhibition, and the aspect of exhibition prefers only popular major artist. The exhibition also has appeared which prefers the works by highly recognized popular artists and is assorted with a famous artist's engravings and drawings. In addition, the exhibition structure has generalized where the press and a specialized agency plan and sponsor an exhibition, a gallery only lends a place. But galleries can get much support for their operation by holding a blockbuster type exhibition, and the public can enjoy a culture and leisure life through galleries by seeing works of famous artists without visiting galleries abroad.

The analysis into the distinctive exhibitions of a blockbuster form held in the major galleries in Korea from 2007 to 2009 - Deoksugung Gallery,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Seoul Museum of Art, and Hangaram Gallery, Seoul Arts Center -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exhibition planning and trend in the exhibition culture and local galleries are also making efforts to plan good quality of exhibitions and attract visitors. It is true that the major galleries' exhibitions had the display theme which could easily attract the general public's attention and guarantee success only a few years ago.

When exhibitions are planned, those of various artists and extensive materials: a design display, fashion design and photos, should be held as well as the works of similar western artists. To satisfy the public in terms of cultural pleasure is the duty of a gallery as a complex cultural facility. Keeping pace with the improved demand and level of visitors, either major galleries or local ones are expected to plan many exhibitions to convey the richness of life.

Keyword

blockbuster, exhibition aspect, gallery

1. 서론

1-1. 문제의 제기

오늘날 수많은 세계의 도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블록버스터형 미술전시는 반세기동안 급속도로 확산되고 정당화되고 있다. 문예적 개발도상국에서 블록

버스터형 전시는 문화, 예술의 취약한 기반과 흔들리는 정체성, 세계화에 대한 과도한 열망의 반영으로 서구의 대형전시의 형태를 앞 다투어 따라하며 하나의 전시형태로 자리 잡았다.(심상용, 2008, p.30)

특히 한국과 같은 서구화된 제3세계 비서구권의 사회에서의 블록버스터형 미술전시의 의미는 복잡하고 미묘한 실정이다. 서구의 대형 전시를 복제, 재생산하는 것이 대단한 문화적 진보가 되는 것처럼 여겨 마구잡이로 메이저급 전시를 기획하고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블록버스터형 전시의 과급효과는 국내전시문화에 여러 가지 양상으로 표출되었다. 블록버스터형 전시의 단점으로 대형미술관들은 1년에 한번 정도는 서양의 블록버스터형 전시를 기획하고 마케팅전략으로 대중적인 홍보와 기업의 재원을 받아 들여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시 되었다. 후원을 하는 언론사와 전문기획사가 전시를 주최하고 미술관은 대역만 하는 공간으로 전락하였다. 또한 예술전시의 상업화 형태의 양상을 띠며 전시양상이 대중들에게 흥행을 보장하고 인기 있는 서양의 대형작가들을 선호하는 형태가 되었다. 이에 반해 블록버스터형 전시의 장점으로 지역미술관은 대형미술관의 전시에 밀리지 않기 위한 자구책으로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관람객에게도 영향을 미쳐 미술관을 예술가와 대중이 소통하는 장소로 받아들이고, 블록버스터형 전시가 문화예술을 영위하는 하나의 문화트렌드가 되었다.

1-2. 연구의 목적과 방법

블록버스터형 전시는 서양의 유명 박물관이나 미술재단에 거액의 대여료와 보험료 등을 지불하고 대형 언론사나 방송사가 주최하거나 후원하여 전시가 이루어진다. 거대 자본의 투입으로 기업협찬과 마케팅은 필수가 되었고 입장료 역시 싸지 않은 값을 부과하게 되었다. 미술관은 국제적 작품과 전시를 통해 많은 이윤을 창출하여 미술관 경영에 도움을 받고 대중들은 세계의 유명 작품을 편히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러나 블록버스터형 전시문화는 흥행에 유리한 작품만을 선택하여 대형전시를 유치함으로써 전시문화의 불균형 현상이 제기되었다.

세계의 미술전시시장에서 균형 있는 전시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시양상의 경향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왜 대중과 미술관이 상업적인 양상을 띠는 전시인 것을 알면서도 블록버스터형 전시를 선호하며 기획하는지 살펴보고자한다. 블록버스터형 전시양상의 경향이 시

대가 변하면서 어떻게 달라졌으며, 국내 전시문화의 경향에 미치는 영향과 관람객, 미술관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시기획의 방향과 블록버스터형 전시의 개선사항의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블록버스터형 전시의 흐름과 경향을 관찰하고 연구하기 위하여 국내, 외 전시시장의 기본적인 자료 등을 문헌과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수집, 조사하고 기업협찬 등의 마케팅 전략과 시대적인 변화요인에 의한 블록버스터형 전시경향의 흐름을 파악하고 분석한다.

많은 블록버스터형 전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국내의 대형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가나다 순)에서 전시되었던 특색 있는 블록버스터형 전시들을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과 다음과 같다.

첫째, 블록버스터형 전시가 시대적으로 어떤 요인이 있어서 등장하였는지 시대적 등장배경과 블록버스터형 전시의 특징을 문헌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둘째, 블록버스터형 전시양상의 경향과 현황을 분석하면서 국내 전시문화의 형태와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셋째, 국내 대형미술관의 블록버스터형 전시 사례를 중심으로 블록버스터 전시를 분석하고, 지역미술관의 전시도 분석하여 앞으로의 전시문화의 전망과 과제를 제시한다.

2. 블록버스터형 전시의 등장

2-1. 블록버스터형 전시의 등장 배경

세계경제에서 국제적 맥락을 떠나서는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세계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소비되는 상품은 국적과 상관없이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소비되고 이런 세계화현상이 소비자를 획일화 시키고 통일화 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 분야 뿐 만 아니라 최근에는 문화예술 분야에까지 세계화 현상이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의 발달로 실시간으로 세계의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세계 예술계의 동향에 변화를 불러왔다. 문화예술 또한 경제 분야처럼 가장 효과적이고 검증된 제도나 문화를 선호하면서 획일화된 문화를 양산하게 되었다.

미술계는 지난 반세기동안 비엔날레(Biennale)라는 형식으로 산업박람회와 동일한 개념의 블록버-

스터형 전시를 세계 도처에서 열고 있다.

비엔날레는 자본주의 사회의 대량 생산방식과 소비구조를 나타내는 문화산업 형태로써, 대표적인 글로벌 문화예술 행사이다.(황정자, 2005, p.17)

이 형태는 세계와의 소통을 꾀하며 거대한 자본 유입을 인정하며 각 대륙으로 확산되었다.

전시 장소인 미술관 역시 변화하고 있다. 미술관 초기의 목적인 특정 계층의 작품소장과 수집, 진열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그간 지내왔던 고유의 영역이 사라지고 누구나 향시'임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것이다(전진성, 2004, p.81). 또한 기존의 작품을 단순히 보여만 주던 미술관의 전시기획의 양상이 대중과의 상호소통적인 행위로 바뀌면서 전시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고전적인 미술관의 전시가 과거에는 유물이나 미술 작품을 '일방적'으로 대중에게 공개했던 데 반해, 현대에는 점차 적극적으로 관람객의 수요, 요구, 기호를 파악하여 이를 기획에 반영하는 '상호 소통적'인 행위로 바뀌고 있다.(이보아, 2000, p.189)

미술관에서의 전시가 관람객과 전시 대상물 사이의 특별한 소통관계를 형성하고 대중에게 다가가는 공간이 되면서 미술관의 운영체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색다른 기획전시를 기획하거나 관람객의 기호나 성향에 따라 이벤트를 계획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상업화 하고 있다.

미술관의 상업화 현상은 미술관이 교육과 학문,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곳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관람객을 이용하여 기업형 운영체제로 바뀌어 가고 있는 모습이다. 사업적 성공에 초점을 맞춰 미술관의 조직과 프로그램을 상업화하고 블록버스터형 전시를 기획, 전시하게 되었다.

블록버스터 전시라는 용어의 사용 동기는 1967년 토머스 호빙(Thomas Hoving)이 메트로폴리탄미술관(Metropolitan Museum of Art) 관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넓은 기반을 가진 대중의 흥미를 세련된 마케팅기술을 통하여 영향력이 있는 디자인정책으로 세우면서 불러 지게 되었다.(Editorial, 1986)

그는 대영박물관(The British Museum)에서 투탕카멘 전시(The Treasures of Tutankhamen)가 개최될 당시 대규모의 관람객들이 전시를 보는 모습을 보며 이런 대형전시가 미국미술관이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 대중들의 흥미와 참여를 유발하는데 효과적인 방

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 때 부터 사용된 블록버스터형 전시라는 용어는 막대한 자본을 들여 기획하고 홍보하여 서양의 유명 작품들의 대형 전시를 미술관이 유치하면서 정착하였다.

2-2. 블록버스터형 전시의 특징

2-2-1. 기업협찬과 마케팅

블록버스터형 전시는 역사적 의의나 예술적 특징에 전혀 관심이 없는 관람객들을 미술관으로 불러들였다. 토머스 호빙 관장은 미술관이 대중에게 개방되어 사회의 공익과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미술관 교육의 책임감을 대중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발하는 대형전시가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 인식하였다. 이런 긍정적 사고는 미국 내 다른 도시의 미술관들로 퍼져갔다. 1980년대 이후에는 세계적인 유물의 전시가 아닌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럽의 명화작가들의 전시가 블록버스터 전시로 자리 잡았다.

20여 년 동안 미국에서 흥행에 성공한 블록버스터 전시는 대부분 대중에게 친숙한 회화작품과 명성이 있는 화가들의 작품전이였다. 그리고 런던의 로얄 아카데미(Royal Academy of Arts)와 내셔널 갤러리(The National Gallery London), 미국의 뉴욕현대미술관(일명 MoMA :Museum of Modern Arts), 시카고 미술관(The Art Institute of Chicago) 등 세계 주요 대도시의 유명 미술관에서 전시되었다. 한국에서도 작가의 지명도에 의존하여 피카소(Pablo Picasso)나 샤갈(Marc Chagall), 달리(Salvador Dalí), 마그리트(René Magritte), 렘브란트(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와 모네(Claude Monet) 등의 바로크회화, 인상파 화가 그리고 앤디워홀(Andy Warhol) 등 대중들이 기억하고 있는 교과서에 등장한 화가들의 작품을 위주로 기획, 전시하였다. 학창시절 미술교과서에 등장해서 한번쯤은 이름을 들어보고 교과서를 통해 작품을 보았던 작가들의 작품을 다시 한 번 확인하러 전시장에 가게된 것이다.

블록버스터형 전시를 미술관에 올리기까지의 과정은 오랜 기간 동안의 치밀한 기획과 더불어 작품 대여료, 운송료, 보험료 등의 비싼 경비를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인 문제가 동반된다. 작품을 대여하는 것에만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다. 전시를 위한 인적 자원 확보와 관리에 대한 투자와 전시의 홍보를 위한 마케팅 분야에도 투자가 필요하다. 전시를 위한 대형 자본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협찬과 마케팅 전략은 블록버스터형 전시의 필수요소가 되었다. 언론과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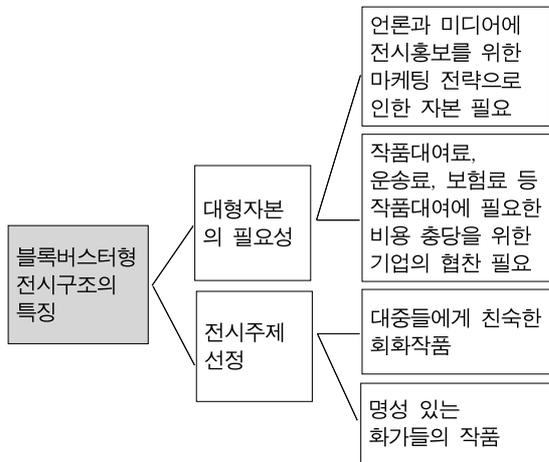
디어에 블록버스터 전시를 홍보하는 마케팅은 대중들에게 전시를 알리는 효과와 함께 자신들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싶어 했던 기업의 협찬을 유도해 냈다.

최근의 국내전시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2009년 12월 16일부터 2010년 3월 28일 까지 전시된 <모네에서 피카소까지>전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일보사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후원하였다. 또한 국민은행, 포스코, 두산건설, 지에스칼텍스, 대한항공에서 협찬하였다. <구스타브 클림트(Gustav Klimt) - 클림트 황금빛 비밀>전은 2009년 2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전시되었다. 동아일보사와 오스트리아 국립벨베데레미술관(Belvedere Museum)이 공동주최하고 포스코, 케이티앤지, 대한항공, 스와로브스키 등 많은 기업에서 협찬하였다. <불멸의 화가 반 고흐>전은 2007년 11월 24일부터 2008년 3월 16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되었다. 한국일보, 서울시립미술관, 케이비에스(KBS) 한국방송이 공동주최하였고,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에서 후원하였다. 대한항공,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웨스턴조선, 아이엔지생명, 혼다코리아, 지에스칼텍스에서 특별후원을 하였다. 하나의 전시를 구성하면서 언론사와 미술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많은 기업들이 후원자로 등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영국, 한국 등의 세계의 주요 도시 미술관들의 블록버스터형 전시는 확일화 된 주제와 전시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시구조의 특징을 아래 표로 정리하였다.

전시명	주최	후원	협찬
모네에서 피카소까지	조선일보사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부 주한미국대사관	국민은행 포스코 두산건설 지에스칼텍스 대한항공
구스타브 클림트-클림트의 황금빛비밀	동아일보사 벨베데레 미술관		포스코 케이티앤지 대한항공 스와로브스키
불멸의화가 반 고흐	한국일보 서울시립 미술관 케이비에스 한국방송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대한항공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웨스턴조선 아이엔지생명 혼다코리아 지에스칼텍스

[표1] 국내전시와 기업협찬



[표2] 블록버스터형 전시구조의 특징

2-2-2. 블록버스터 전시의 파급효과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활동이 그들의 생활양식과 욕구를 강화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는 이런 다양한 활동 중의 하나로 사람들의 삶을 풍족하게 한다.

미술관을 방문하는 관람객 역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미술관을 찾는다. 여가활동의 의미에서 사람들과 함께 사회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는 학습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미술전시를 관람한다.

관람객들은 미술관의 전시를 “영감을 불어 넣는 것,” “정신을 고양시키는 것,” “위엄을 갖춘 것,” “특별한 것”으로 묘사한다. (존 포크, 린 디어링, 2008, p.162)

많은 미술전시 중에서도 블록버스터형 전시는 대중들에게 친숙하고 명성 있는 화가들의 작품을 주제로 선정해 관람객들의 전시에 대한 호기심과 경외감을 고조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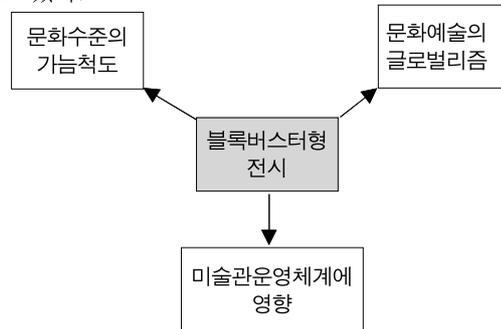
또한 블록버스터형 전시의 관람이나 미술관을 찾는 것이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로 사회에 인식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관람하는 관람객들의 사회경제학적 수준이 평균이상이라는 사실은 대부분의 관람객 연구에서 일관성 있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미술관, 과학박물관, 식물원, 동물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또한 국가나 문화를 초월해서 예컨대 미국, 캐나다, 스웨덴, 영국 등의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존 포크 등, 2008, p.55)

관람객은 이러한 관람객연구결과를 이미 알고 자신의 문화수준을 그 반열에 끼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미술관을 찾는다. 미술관의 전시를 본다는 것,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작가의 작품을 본다는 것은 하나의 문화 트렌드로 꼭 성취해야만 하는 품목으로 여겨져 관람객들을 유혹한다.

경제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을 것이라 여겨졌던 글로벌리즘은 문화예술, 미술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한 예로 블록버스터형 전시는 문화예술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확인된 운영방식이다. 그러나 지역이나 국가를 초월한 글로벌리즘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획일적인 문화를 양산하고 있다. 관람객들의 전시장을 찾는 목적이 본인의 여가활동수준을 향상시키고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여기고 싶어 했듯이 미술관 역시 서구의 메이저급 전시를 가져와 전시를 한다는 것에 세계미술의 흐름에 발맞춰 국제적인 반열에 근접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 사회에서의 블록버스터형 전시 도입은 장점도 있지만 문화예술의 취약한 기반에 흔들리는 정체성을 초래하고 세계화에 대한 과도한 열망의 반영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미술관 운영에 있어서 블록버스터형 전시의 도입은 미술관의 경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그 방법으로 미술관 전반에 대한 활동과 교육프로그램이 상업화현상으로 전환되었다. 자체적으로 미술관을 운용할 수 있는 자금 확보를 위해 미술관의 존재가 영리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지만 상업화현상을 띄게 된 것이다. 미술관의 경제적인 운영체계에서 보면 블록버스터형 전시를 기획함으로써 비싼 입장료 징수와 주차장, 카페, 뮤지엄샵 등에서 수입원을 증가시켰다. 또한 기획된 전시와 연관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전시 후 관람객들이 전시의 여운과 함께 구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전시 연관 상품 개발은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미술관의 더 나은 이익을 위하여 본연의 질과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표3] 블록버스터형 전시의 다양한 효과

3. 대형미술관의 블록버스터형 전시양상의 경향과 전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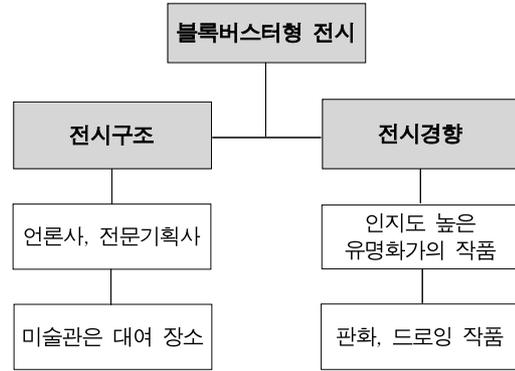
3-1. 블록버스터형 전시의 구조와 경향

더 나은 전시를 위해서 성공적인 블록버스터형 전시의 개최는 불가피하게 더 많은 유명한 서구의 작가와 큐레이터, 미술관 관련자들을 불러들이는 것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심상용, 2008, p.66) 블록버스터형 전시문화의 구조를 살펴보면 전시기획은 전문 기획사에서 하며 미술관은 단지 장소를 빌려주는 곳으로 전락하였다. 주최 역시 대형언론사에서 주관하고 작품을 빌려오는 외국의 미술관과 함께 공동 주최를 하기도 한다. 비싼 작품 대여료와 보험료, 운송료 등의 전시 경비와 홍보문제, 기획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작가수와 작품 수 등을 고려하면 대형미술관에서만 전시가 이루어 질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또한 어떤 작품이 전시되어지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기 보다는 얼마큼 인지도가 있는 유명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느냐에 초점을 맞춘다. 모네(Édouard Manet), 마네, 고흐(Paul Gauguin), 고흐(Van Gogh), 피카소, 마티스(Henri Matisse) 등의 이름이 들어간 전시가 블록버스터형 전시에 자주 등장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이다. 그 예로 2009년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전시되었던 <모네에서 피카소까지>전과 2006년 <반 고흐에서 피카소까지>전, 2007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되었던 <빛의 화가 모네>전, <불멸의 화가: 반 고흐>전이 있다.

모든 전시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작가의 이름만 내걸고 정작 그 작가의 가장 중요한 작품은 전시가 되지 않고 이름만 앞세워 판화, 드로잉 위주의 구성만 갖춘 전시의 경우도 있다. 또한 대표적 흥행 전시의 공통점으로 획일화된 주제설정과 전시형태를 꼽을 수 있다.

국내전시 뿐만 아니라 세계의 유명미술관에서 전시되어지는 블록버스터형 전시가 한명의 유명 대가를, 남성작가를, 그리고 주로 회화 작가를 선택한다. 게다가 이것은 거의 매번 그들 예술의 일대기를 기념하는 형태로 포장되어 올려 진다.(황경자, 2004, p.196)



[표4] 블록버스터형 전시의 구조와 경향

3-2. 블록버스터형 전시양상의 효과와 영향 분석

유럽이나 미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유명작가의 작품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은 관람객들을 충분히 미술관으로 끌어 들인다. 대영박물관에서 투탕카멘의 전시가 개최되는 것을 보고 미국에 블록버스터형 전시를 끌어들이는 토마스 허빙의 생각도 바로 이런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투탕카멘 전시를 1976년 워싱턴내셔널갤러리(Washington National Gallery)에 시작하여 1979년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전시의 막을 내렸다.

블록버스터형 전시의 기획은 서구의 미술관을 주체로 하여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선정할 수도 있고, 유명작가를 선정하여 그 작가의 일대기를 조명하는 작품들로 기획하기도 한다. 또한 그 작가가 활동하던 시대를 테마로 하여 다른 작가들의 작품도 기획 전시한다. 관람객들이 유명 작품을 보기 위해 그 나라의 미술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시를 볼 수 있으니 국내의 대형미술관이 예술가와 대중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장소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블록버스터형 전시의 자금 확보를 위한 후원은 마케팅전략과 함께 대대적인 전시홍보로 이어져 대중들이 관람 이전에 전시에 대한 정보와 호기심을 가지게 한다. 이미지를 보고 느끼고 감성의 자극을 받으며 관람객은 전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소비상품으로 보게 된다. 바이어(Herbert Bayer¹⁾)는 전시의 방법이 모든 영역의 매체와 소통

1) 헤르베르트 바이어([Herbert Bayer, 1900.4.5~1985.9.30])는 오스트리아의 디자이너로 건축을 공부한 뒤, 1921년 바우하우스에 입학하였다. 1925~1928년에는 바우하우스에서 시각전달 및 타이포그래피의 지도를 맡았다. 1928년부터는 베를린에서, 1938년부터는 미국에서 다각적으로 활동하였다. 그의 영역은 그래픽디자인으로부터 디스플레이, 건축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

의 힘들이 복합적으로 형성된 영역이라고 한다.(이보아, 2003, p.106) 블록버스터형 전시문화는 예술가와 대중이 소통하는 방법이며 미술관과 예술가, 대중, 매체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형태이다. 현대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중의 삶을 풍족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람들은 블록버스터형 전시를 감상하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의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아 현대의 문화코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대중은 어떤 목적을 갖고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지, 관람객들은 어떤 동기로 미술관을 찾는지, 블록버스터형 전시문화 관람을 왜 선택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2003년 한국을 방문한 미술 사학자 로젠 블럼(Robert Rosen-blum)은 모네 회고전의 관람 경험에 대해 작품마다 관람객이 10명씩 붙어 있어 미술관이 아니라 마치 세일 중인 백화점을 방불케 했다고 표현했다. 그는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또 늘 새것에 굶주려 있는 대중의 열망에 재빨리 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대미술은 엔터테인먼트산업이며, 유행을 타는 패션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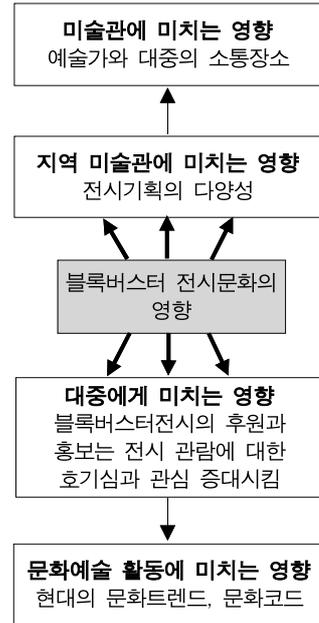
로젠 블럼의 말처럼, 박물관과 특히 미술관의 이러한 대중성 지향적인 전시기획은 기관의 재정 자립도를 위한 전략으로 그리고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이러한 전시가 박물관과 미술관의 공공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성찰과 대화가 요구된다.(이보아, 2003, p.192)

대형미술관의 대형전시기획은 지역미술관의 전시 기획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미술관 대여로 미술관 경영과 운영의 주를 이루던 미술관들은 관람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좀 더 나은 전시기획을 하게 되었으며 대중들에게는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게 하였다. 그 예로 2007년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에서는 <열정, 천재를 그리다>라는 타이틀로 모딜리아니(Amedeo Modigliani)의 작품을 기획하였고, 2010년 소마미술관은 <팝아트 슈퍼스타 키스헤링(POP:ART Keith Haring)>전을 전시하였다. 사진이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디자이너의 전시도 기획하여 전시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최근의 대림미술관에서의 <인사이드 폴 스미스(Paul Smith)>전²⁾이 그 예이

채롭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2) <인사이드 폴 스미스>전은 2010년 9월2일부터 11월28일까지 대림미술관에서 열린 전시로 디자이너 폴 스미스가 수집한 회화, 앨범, 커버, 드로잉 등 70여점의 작품과 그가 찍은 사진 300여점이 전시되었다.

다.

블록버스터형 전시가 상업적으로 치우친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형미술관 뿐만 아니라 지역자치 미술관에도 자극이 되어 국내전시문화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표5] 블록버스터 전시문화의 영향

4. 국내 대형미술관의 블록버스터형 전시 분석 사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전시 중에서

2000년 한국에서 대형국제전시인 <오르세미술관(Orsay Museum)전-인상파와 근대미술>을 시작으로 한국 미술계에서 세계적인 미술관의 작품이나 서양의 유명화가의 작품으로 전시를 구성하는 블록버스터형 전시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최근 3년 동안에도 많은 전시가 기획되었는데 국내의 3대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현대미술관(덕수궁미술관 포함), 서울시립미술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전시된 특색 있는 대형전시를 살펴보고자 한다.

4-1. 2007년 국내 대형미술관의 블록버스터형 전시분석

덕수궁미술관에서는 2007년 6월 26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 <합스부르크 왕가 컬렉션 비엔나미술사박물관전-렘브란트와 바로크 거장들(Great Habsburg Collectors Kunsthistorisches Museum Vienna)>을 기획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과 엠비씨, 동아일보가 주최와 후원을 담당했던 국내 기획 전시이다. 비엔나미술사박물관은 루브르박물관(Le musée du Louvre), 프라도미술관(Museo del Prado)과 함께 유

럽 3대 미술관으로 불리는 미술관으로 17세기 바로크 미술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였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소장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시였다. 렘브란트, 루벤스(Peter Rubens), 벨라스케스(Diego Velázquez), 티치아노(Veccello Tiziano) 등 세계적 거장들의 대표작 64점을 전시하였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2007년 6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빛의 화가 모네>전을 2007년 11월 24일부터 2008년 3월 16일까지 <불멸의 화가-반 고흐>전을 선보였다. 모네전은 클로드 모네의 유화 70여점이 전시되었고 모네의 대표작인 '수련'이 초기의 수련부터 말년의 수련까지 20여점 포함돼 있었다. 모네전은 전시 첫날 4,300여명이 입장해 국내 미술 전시 사상 '개막일 최다 관람객 동원' 기록을 세우며 총 관람객이 40만 명, 유료 관람객은 30만 명으로 집계된 전시이다. 11월에 전시된 <반 고흐 회고전>은 반 고흐의 작품 절반 이상을 소장하고 있는 반 고흐 미술관(Van Gogh Museum)과 크렐러-뮐러미술관(Kröller-Müller Museum)으로부터 엄선한 유화 45점과 드로잉 및 판화작품 22점이 선보였는데 반 고흐 작품의 탄생과 변천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대기 순으로 전시를 구성하였다.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는 2006년 12월 22일부터 2007년 3월 28일까지 조선일보사에서 주최한 <반 고흐에서 피카소까지-클리블랜드미술관 한국 특별전>이 전시되었는데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Cleveland Museum of Art)이 소장한 인상파 작품 등 94점이 선보였다. 또한 4월 21일부터 9월 2일까지 <오르세미술관 한국전>을 예술의 전당과 에스비에스(SBS)가 주최하여 19세기 인상파 화가인 고흐, 고갱, 모네, 르누아르(Auguste Renoir), 세잔(Paul Cézanne) 등 19세기 인상파 화가들의 회화 작품 44점과 사진이 전시 되었다. 11월 27일부터 2008년 2월 27까지는 <칸딘스키와 러시아 거장 전(Kandinsky and Russian Masterpieces) - 19세기 리얼리즘에서 20세기 아방가르드까지>로 러시아 회화 91점을 선보였다. 또한 2007년부터 예술의 전당이 기획하기 시작한 <세계 속의 한국현대미술>전은 한국현대미술이 세계무대에서 이룬 성취를 국내 관람객들에게 소개하는 전시로 11월 16일부터 12월 21일까지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작가들과 뉴욕과 한국 미술계에서 인정받은 중진작가 10명의 작품을 전시하였다.

2007년 국공립 대형미술관에서 열린 블록버스터형 전시는 비슷한 주제를 가진 기획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시의 다수가 인상파전이거나 인상파 작가를 내세운 전시가 많아 한국인이 선호하는 전시가 인상

파이고 인상파 작품만 편중해 소비한다는 인상을 준다. 또한 유럽이나 미국의 한 미술관을 선정하여 그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전시하는 기획이 주를 이루었다.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 전	덕수궁 미술관	2007.6.26 -2007.9.30	합스부르크 왕가의 소장품으로 구성된 전시
빛의 화가 모네 전	서울 시립 미술관	2007.6.6 -2007.9.26	클로드모네의 유화 70여점 전시
불멸의 화가 반 고흐 전	서울 시립 미술관	2007.11.24 -2008.3.16	유화 45점, 드로잉 및 판화작품 22점 등 반 고흐 작품의 탄생과 변천과정을 연대기 순으로 구성
반고흐에서 피카소까지-클리블랜드미술관 한국특별전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2006.12.22 -2007.3.28	클리블랜드미술관이 소장한 인상파 작품 등 94점을 전시
오르세 미술관 한국전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2007.4.21 -2007.9.2	19세기 인상파 화가들의 회화 작품 44점과 사진을 전시
세계 속의 한국현대미술-뉴욕전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2007.11.16 -2007.12.21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작가들과 뉴욕과 한국 미술계에서 인정받은 중진작가 10명의 작품을 전시
칸딘스키와 러시아 거장 전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2007.11.27 -2008.2.27	러시아 회화 91점을 전시

[표6] 2007년 국내 주요 국공립미술관 블록버스터형 전시



[그림1] 불멸의 화가 반 고흐 전



[그림2] 반 고흐에서 피카소까지

4-2. 2008년 국내 대형미술관의 블록버스터형 전시분석

2008년에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활 쏘는 헤라클레스-거장 부르델(Antoine Bourdelle)>전을 2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전시하였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부르델 미술관(Bourdelle Museum)을 통째로 옮겨 놓

았다는 평을 받을 만큼 조각 및 데생, 수채화 등 모두 123점이 선보였다. 뉴시스통신사, 소년한국일보, 서울시립미술관이 공동 주최하면서 기획 단계부터 전시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특별 배려를 하며 국내 전시회 사상 최초로 어린이용 도록도 제작되었다. 11월 22일부터 2009년 3월 22일까지는 <프랑스 국립 폼피두센터 특별전 - 화가들의 천국(Musée National D'art Moderne Centre Pompidou)>전을 민간 사업자인 지엔씨미디어가 주관하고 폼피두센터 부관장 겸 수석 학예연구관인 디디에 오텍제(Didier Ottinger)에 의해 기획되어 회화, 설치, 영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79점이 소개되었다.

예술의 전당에서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 까지 <크로스 컬처 만화와 미술전>을 예술의 전당 개관 20주년 기념으로 기획하여 만화의 캐리커처와 캐릭터를 미술작품 속에서 다시 탄생시킨 전시를 평면, 회화, 입체조각, 설치미술 등 다양한 형식의 현대미술작품으로 전시하였다.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2007년에 이어 기획된 <세계 속의 한국현대미술2-파리전>을 전시하여 파리에서 활동 중인 1세대, 2세대의 한인작가들의 작품을 조명하는 전시였다. 11월 7일부터 2009년 2월 26일까지는 <서양미술 거장전-렘브란트를 만나다>전이 선보였다. 에스비에스와 러시아 국립푸시킨미술관((Pushkin Fine Arts Museum)에서 주최하는 전시로 렘브란트, 브뤼겔(Pieter Bruegel), 반 다이크(Anthony Van Dyck) 등 17-18세기 명화 76점이 전시되었다.

위의 전시들을 살펴볼 때 대형미술관의 블록버스터형 전시가 민간 사업자나 언론사가 마련한 전시에 실상 장소만 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미술관에서는 미술관이 주최하는 시리즈 전시를 기획하여 세계무대의 한국현대미술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관람객의 대상을 고려하여 특정 관람객을 위한 도록제작을 한 전시도 있었다. 회화작품위주의 전시가 많았던 2007년의 전시와 비교하면 전시의 주제와 소재가 좀 더 다양해 졌다.

할 쏘는 헤라클레스 -거장 부르델	서울 시립 미술관	2008.2.29 -2008.6.8	부르델미술관의 조각, 데생, 수채화 등 123점을 전시, 국내전시회사상 최초로 어린이용 도록 제작
프랑스국립 폼피두센터 특별전 -화가들의 천국	서울 시립 미술관	2008.11.22 -2009.3.22	회화, 설치, 영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79점 전시

크로스컬처 만화와 미술전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2008.4.30 -2008.5.29	만화의 캐리커처와 캐릭터를 평면, 회화, 입체조각, 설치미술 등 다양한 형식의 현대미술작품으로 전시
세계 속의 한국현대 미술2 -파리전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2008.11.1 -2008.11.30	파리에서 활동 중인 1세대, 2세대의 한인작가들의 작품을 조명하는 전시
서양미술 거장 전 -렘브란트를 만나다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2008.11.7 -2009.2.26	렘브란트, 브뤼겔, 반 다이크등 17-18세기 명화 76점 전시

[표7] 2008년 국내 주요 국공립미술관 블록버스터형 전시



[그림3] 거장 부르델



[그림4] 서양미술 거장 전

4-3. 2009년 국내대형미술관의 블록버스터형 전시분석

2009년에는 6월 30일부터 9월 17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과 엠비씨, 동아일보가 주최한 <페르난도 보테로(Fernando Botero)>전이 덕수궁 미술관에서 전시되었다. 20세기 유파와 상관없이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추구한 페르난도 보테로의 작품세계를 조망하는 전시로 회화 및 야외조각 등 총 92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10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동양의 사진작가로는 처음으로 스페인 티션미술관(Thyssen Museum)에서 개인전을 개최하고 세계무대에서 주목받는 작가 배병우의 사진전 <배병우전>을 선보였다. 1990년대 국내 사진계의 도약을 이끈 주역으로 사진을 예술적 표현도구로 인식하여 회화적인 사진을 제시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인상파화가의 전시와 팜아티스트의 전시 두 가지를 선보였는데 5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는 <행복을 그린 화가-르누아르>전을 12월 12일부터 2010년 4월 4일까지는 <앤디워홀의 위대한 세계>전이 그 것이다. <행복을 그린 화가-르누아르>전은 19세기 인상파 화가 중 한명인 르누아르의 작품을 파리 오르세미술관과 오랑주리미술관(Musée de l'Orangerie) 소장 걸작품을 중심으로 전 세계 40여 공공미술관과 개인소장 작품 118점을 한자리에 모은

르누아르 회고전이였다. <시대를 초월한 팝아트의 제왕-앤디워홀의 위대한 세계>전은 서울시립미술관, 동아일보사, 엠비씨가 주최하여 워홀의 자화상과 대중스타를 포함한 세계적인 유명인사의 110여점이 달하는 초상화와 브릴로 상자 등 그의 대표작들이 다양한 장르로 총 400여점이 넘게 선보였다.

한가람미술관에서는 2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구스타브 클림트-클림트 황금빛 비밀>전과 12월 15일부터 2010년 3월 28일까지 <색채의 연금술사 루오(Georges Rouault)>전을, 12월 16일부터 2010년 3월 28일까지 <모네에서 피카소까지>전을 전시했다.

<구스타브 클림트-클림트 황금빛 비밀>전은 벨베데레, 알베르티나(Albertina) 등 오스트리아미술관 뿐만 아니라 미국, 루마니아 등 전 세계 미술관과 개인 컬렉터의 소장품까지 110여점으로 구성된 전시이다. 클림트 작품의 최대 소장처인 벨베데레미술관이 100년간은 해외전시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더 많은 관람객이 모였던 전시였다.

국제미술평론가협회 윤진섭 부회장(호남대 교수)은 “국내에서 열린 블록버스터전이 결만 번지르르한 의화내빈의 경우가 많았는데 클림트 한국전은 한 화가의 진면목을 소개한 의미 있는 전시”라고 말했다.(동아일보, 2009)

<색채의 연금술사 루오>전은 서울신문사와 프랑스 국립퐁피두센터가 주최를 한 전시로 퐁피두의 미공개 컬렉션을 해외에 처음으로 소개하며 총 170여점의 작품이 소개된 전시였다. <모네에서 피카소까지>전은 13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의 필라델피아미술관(Philadelphia Museum of Art)의 컬렉션에서 엄선한 유럽 인상주의 대가들의 작품 96점을 선보였다. 필라델피아미술관은 회화, 조각, 판화, 동양 미술 등 22만 5천여 점의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는 미국의 3대 미술관으로 꼽힐 만한 미술관이다(박진현, 2010, p.312).

3월 4일부터 5월 8일 까지 사진전도 전시되었는데 <인물 사진의 거장 카쉬(Yousuf Karsh)>전이 바로 그것이다. 이 전시는 193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4000여장의 카쉬의 작품 중 총 90여 점의 작품을 엄선하여 20세기의 역사적 인물들의 초상사진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각 인물의 일대기와 카쉬가 직접 기록한 촬영 당시의 일화가 함께 전시되어, 미술과 문학을 접목한 색다른 전시 형태를 선보였다.

2009년에는 기존의 블록버스터형 전시에서 한 단계 진화한 전시양상을 보였는데, 인상과 화가들 위주의 작품에서 탈피해서 라틴미술, 팝아트, 20세기 아

티스트 등 다양한 화풍과 장르의 작가들 작품이 선보였다. 국외 미술관 중 한 미술관의 소장품들로 이루어지던 전시도 변화가 있었다. 전시기획에 선정된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여러 미술관의 작품과 개인소장품까지 전시되어 깊이 있는 작품을 선보였고, 이제까지 대중들에게 공개된 적이 없는 작가의 미완성작 등 해외미술관의 컬렉션들도 전시되어 관람객들의 전시 관람의 폭을 넓혀주었다.

페르난도 보테로	덕수궁 미술관	2009.6.30 -2009.9.17	페르난도 보테로의 회화 및 야외조각 등 총 92점의 작품을 전시
배병우전	덕수궁 미술관	2009.10.1 -2009.12.6	사진을 예술적 표현 도구로 인식하여 회화적인 사진을 제시한 배병우의 전시
행복을 그린 화가 -르누아르	서울시립 미술관	2009.5.7 -2009.9.13	오르세미술관, 오랑주리미술관 소장 걸작품을 중심으로 전 세계 40여 미술관과 개인소장 작품 118점을 모은 르누아르 회고전
앤디워홀의 위대한 세계	서울시립 미술관	2009.12.12 -2010.4.4	워홀의 자화상과 세계적인 유명인사의 초상화 110여점, 브릴로 상자 등 대표작과 다양한 장르의 작품 총 400여점 전시
구스타브 클림트-클림트 황금빛 비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2009.2.2 -2009.5.15	클림트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오스트리아미술관, 미국, 루마니아 등 전 세계 미술관과 개인 컬렉터의 소장품 110여점으로 구성된 전시
인물 사진의 거장 카쉬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2009.3.4 -2009.5.8	1930년~1990년대까지 4000여장의 카쉬의 작품 중 총 90여 점의 작품을 전시, 20세기의 역사적 인물들의 초상사진으로 구성
색채의 연금술사 루오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2009.12.15 -2010.3.28	퐁피두의 미공개 컬렉션을 해외에 처음으로 소개, 총 170여점의 작품이 소개된 전시
모네에서 피카소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2009.12.16 -2010.3.28	필라델피아미술관의 컬렉션에서 엄선한 유럽 인상주의 대가들의 작품 96점을 전시

[표8] 2009년 국내 주요 국공립미술관 블록버스터형 전시



[그림5] 페르난도 보테로



[그림6] 배병우전

4-4. 지역 미술관의 전시분석

대형미술관들의 블록버스터형 전시가 기획되고 진행되는 동안 규모가 크건 작건 지역의 미술관들도 좋은 전시를 기획하고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소마미술관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륜, 경쟁 및 스포츠토토사업으로 마련된 수익금 전액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국민의 예술적 정서 함양을 위하여 2004년 9월 개관한 미술관이다. 2006년에는 <파울 클레 - 눈으로 마음으로>전을, 2007년에는 <누보 팝>과 <반 고흐에서 피카소까지>전을, 2008년에는 <프랑스 디자인의 오늘>과 2010년에는 <팝아트 슈퍼스타 키스해링>전 등 해외전시를 개최하였고, 2006년에는 국내 최초로 소마드로잉센터를 개관하여 드로잉 분야에 독창적인 색깔을 추구하며 젊은 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매년 드로잉 전을 열고 있다.

장르별로 특성화하여 건설한 전문공연예술센터인 고양아람누리의 아람미술관에서는 2007년 12월 27일부터 2008년 3월 16일까지 <열정, 천재를 그리다-모달리아니와 잔느의 행복하고 슬픈 사랑>전을 2008년 4월4일부터 6월 15일까지는 <오늘로 걸어 나온 겸재>전을 전시하였다. 또한 미술관의 기획이 돋보이는 프로젝트와 기획전을 개최하였는데 2009년에 진행된 <아람/어울림 연계특별전 행복한 상상 프로젝트>와 <하반기 아람기획전-식사의 의미, 여덟 가지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성남아트센터 미술관에서는 성남문화재단의 주최로 2007년 12월 30일부터 2008년 2월 24일까지 <유럽 현대 미술의 위대한 유산-마티스와 피카소에서 미로, 샤갈현대 회화의 거장들>전을 전시하였고, 2008년 12월 20일부터 2009년 2월 22일까지는 <호안미로-최후의 열정>전은 호안미로의 후기 작품들을 위주로 프랑스 최초 사설미술재단이며 미로가 전속작가로 활동했던 매그재단의 미로 판화 103점이 전시되었다. 대형미술관의 점유물처럼 여겨졌던 블록버스터형 전시를 지역미술관에서도 기획하여 지역주민들이 한층 가까이서 볼 수 있게 하였다. 미술관 자체의 기획이 돋보이는 전시도 있었는데 2008년 성남문화재단은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미술관'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성남지역의 야외 및 실내 공간에서 <찾아가는 미술관>을 개최하였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과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하여 문화소외계층과 평소 미술관을 찾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기획된 것이다. 또한 <팝아트의 세계-Pop N Pop>전을 개최하여 국내외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

현대미술의 현재를 팝아트로 조망한 전시도 있었다. 회화, 조각, 설치미술, 영상미술 등 형식과 주제를 다양하게 다뤄온 현대 미술가들을 초대한 전시였다.

특정계층을 타깃으로 한 전시도 있었는데 2009년 12월에 전시된 <How to enjoy the Modern Art, together with miffy-미술관에 가요! Let's go to the MUSEUM>전은 전세계의 어린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미피의 작가 디 브루너(Hendrik Bruna)의 원화와 어린이들을 위한 미피인형극, 플레이존, 여러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어린이를 타깃으로 하다 보니 다른 전시와는 다르게 24개월 이상의 유아들도 어른과 같은 입장료를 내고 관람과 체험을 할 수 있었다.

누보 팝	소마 미술관	2007.7.12 -2007.9.30	유럽의 팝 아트 작품 전시
반 고흐에서 피카소까지	소마 미술관	2007.4.7 -2007.5.20	클리블랜드미술관이 소장한 인상파 작품 등 94점을 전시
프랑스 디자인의 오늘	소마 미술관	2008.6.17 -2008.8.31	프랑스 현대 디자인을 대표하는 2인의 작가와 그룹의 작품으로 구성된 전시
열정, 천재를 그리다-모달리아니와 잔느의 행복하고 슬픈 사랑	아람 미술관	2007.12.27 -2008.3.16	모달리아니와 잔느의 유화, 드로잉 등 150여점을 전시
오늘로 걸어 나온 겸재	아람 미술관	2008.4.4 -2008.6.15	겸재 정선에서 현대작가의 작품에 이르기까지의 풍경화로 구성된 전시
행복한 상상 프로젝트	아람 미술관	2009.4.17 -2009.6.28	아람/어울림 연계 특별전
식사의 의미, 여덟 가지 이야기	아람 미술관	2009.10.15 -2009.12.27	하반기 아람기획전으로 8인의 작가들의 '식사'에 대한 전시
유럽 현대 미술의 위대한 유산-마티스와 피카소에서 미로, 샤갈현대 회화의 거장들	성남 아트센터 미술관	2007.12.30 -2008.2.24	입체파, 인상주의, 표현주의 작가들의 원화 22점과 샤갈 탄생 120주년을 기념한 판화 80여 점, 마티스 판화 23점 등 총 125점을 전시
찾아가는 미술관	성남 아트센터 미술관	2008.5.27 -2008.10.17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과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하여 문화소외계층과 평소 미술관을 찾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기획한 전시

팝아트의 세계 -Pop N Pop	성남 아트센터 미술관	2008.7.4 -2008.8.28	국내외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 현대미술의 현재를 팝아트로 조망한 전시
호안미로-최후의 열정	성남 아트센터 미술관	2008.12.20 -2009.2.22	호안미로의 후기 작품들을 위주로 매그제단의 미로 판화 103점을 전시
미술관에 가요!	성남 아트센터 미술관	2009.12.12 -2010.2.21	미피의 작가 딕 브루너의 원화와 어린이들을 위한 미피인형극, 플레이존, 여러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

[표9] 2007-2009년까지 지역미술관의 전시현황

5. 전시문화의 과제와 전망

미술관은 비공식적인 교육 환경으로서, 대중에게 즐거움과 위락, 정서 함양을 제공해준다. 동시에 자아실현과 자기 성장을 위한 성찰과 타인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주며, 삶의 풍부함을 제공해준다.
(이보아, 2003, p.23)

현대의 미술관의 역할이 대중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하고 있고, 기존의 작품을 단순히 보여만 주던 미술관의 전시기획의 양상이 대중과의 상호소통적인 행위로 바뀌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에 블록버스터형 전시가 매년 활발히 기획되었고 비슷한 기획들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2007년 국내 대형미술관의 블록버스터형 전시는 다수가 인상파전이거나 인상파를 앞세운 전시가 주를 이루었다. 이는 한국인이 선호하는 전시가 인상파이고 인상파 작품만 편중해 소비한다는 양상을 띤 초창기의 블록버스터형 전시형태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서양 대형작가들의 전시와 더불어 한국현대미술전도 열려 전시기획의 변화가 보였다. 2008년에는 좀 더 다양한 전시가 기획되었다. 회화작품 뿐만 아니라 조각이나 만화-서울시립미술관의 <활 쓰는 헤라클레스-거장 부르델>전이나 한가람미술관의 <크로스 컬러 만화와 미술전>은 다양한 전시기획의 일부이다. 또한 대형언론사나 민간 사업자에게 장소만 빌려주는 프로그램이 주가 되었던 미술관이 주체가 되어 시리즈 전시기획³⁾을 하기도 하였다. 2009년에는 인상파 작가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라틴미술, 팝아트, 사진전 등 여러

3) 한가람미술관에서 전시된 <세계 속의 한국현대미술2-파리전>은 2007년 <세계 속의 한국현대미술1-뉴욕전>에 이어 두 번째로 기획된 전시이다.

장르의 작품과 구스타브 클림트, 루오 등 다양한 화풍의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 기획하였고 해외미술관의 미공개 컬렉션도 전시되어 전시기획의 다양성과 진일보한 전시양상을 보였다.

초창기 블록버스터형 전시가 엄청난 액수의 기획과 광고에 비해 정작 작품들은 유명 화가의 이름만 앞세운 판화, 드로잉 위주의 짜집기형 이었다면 2008년 이후에는 획일화된 주제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기획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장의 작품이 대중의 관심을 끌기 쉽고 흥행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전의 전시들의 주제가 인상파 위주의 전시라든가, 비슷한 주제들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현재의 블록버스터형 전시의 추세는 좀 더 다양한 작가들의 전시로 기획이 바뀌고 있는데 관람객들의 문화수준 또한 그만큼 향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대형미술관의 블록버스터형 전시는 지역미술관의 전시기획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역의 지자체와 조화를 이룬 미술관의 특화된 전시 - 성남아트센터의 <찾아가는 미술관>은 그 지역시민과 함께 하는 전시 기획이다. 얼마 전 대림미술관에서 개최된 <인사이드 폴 스미스>전은 영국을 대표하는 패션 디자이너 폴 스미스의 개인 아트 컬렉션을 전시한 것이었다. 국내외 다양한 작가들의 전시를 기획하는 국제갤러리나 갤러리현대의 전시기획도 전시문화의 한 방향을 제시한다고 본다. 소재의 다양성도 있다. 세계 최초 건축도자 전문미술관인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은 건축도자와 연계한 전시를 개관 이래 꾸준히 기획하여 2010년에는 건축도자의 거장 <니노 카루소(Nino Caruso)>⁴⁾전을 전시하였다. 꼭 서양화가의 작품이 아니더라도 앞서 살펴봤듯이 디자인전이나 동화작가, 패션 디자이너, 사진전 등 다양한 작가와 소재의 폭넓은 전시기획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대표적인 국내의 대형미술관에서 해외에서 빌려온 명화들로 구성된 블록버스터형 전시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민간 사업자가 기획을 하거나 언론사에서 전시를 주최하고 미술관은 대여만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전시문화의 주류를 이루는 국내의 대형미술관의 대부분이 국공립미술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시의 과대포장과 비싼 입장료는 해외의 좋은 작품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공립미술관의 운영이 입장료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영리조직인 미술

4) <니노 카루소>전은 2010년 6월12일부터 9월26일까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에서 열린 전시이다. 니노 카루소는 독창적인 도자모듈시스템을 활용하여 도자, 조각, 디자인, 건축의 융합을 도모하는 작업을 펼쳤다.

관에 내재한 상업주의 방식은 제도적인 미술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한국전시문화가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지역의 지자체와 함께하는 특화된 전시, 소재와 장르의 다양성으로 이루어진 전시기획의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 대중과 소통하고 공존하는 효율적 운영방법의 모색 또한 계속해 나가야 한다.

전시를 찾는 관람객은 이제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주체가 되었고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의 한가지로 미술관의 전시를 찾는다. 대중의 문화적 충족을 만족시켜주는 것은 미술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향상된 관람객의 욕구와 수준에 맞춰 대형미술관이던 지역미술관이던 삶의 풍부함을 전달할 수 있는 전시가 많이 기획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박진현.(2010). 처음만나는 미국미술관. 고양: 위즈덤하우스.
- 심상용.(2008). 속도의 예술. 파주: 한길사.
- 이보아.(2000). 박물관학 개론. 파주: 김영사.
- 이보아.(2003). 성공한 박물관 성공한 마케팅. 서울: 역사넷.
- 전진성.(2004). 박물관의 탄생. 파주: 살림.
- 존 포크, 린 디어킹(John H. Falk & Lynn D. Dierking). 이보아(역). (2008). 관람객과 박물관. 서울: 북코리아.
- 황경자.(2005). 미술관 운영에서 나타나는 상업화 현상 연구. 동덕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황경자.(2004). 미술관 블록버스터 전시의 상업주의적 경향연구. '한국미술이론학회지: 미술이론과 현장', 2, 191-213.
- Editorial.(1986). Art History and the "Blockbuster" Exhibition. *Art Bulletin*. 68, 358-359.